

# 아함경

에서 건진 지혜 (제33화)



##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서..."

<출전 : 삼유따 니까야 357>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옥



어쩌면 우리는 이 지구별이라는 학교에 공부하러 입학한 학생들일지도 모릅니다.



당신 주위를 유심히 살펴 보세요. 이제 막 지구별에 입학한 것 같은 사람들도 보이고...

우하하하 돈이 최고야~.

나에게 쾌락을 줘~.

이주 가끔은 큰 공부를 이루어 졸업을 앞둔 분들도 계십니다.

마음을 멈추고 다만 바라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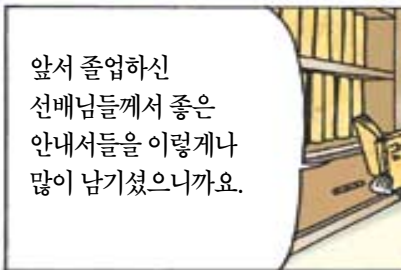
우리들은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기 전까지 영겁토록 유급을 하며 이 지구별 학교에 머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지요?



걱정 마십시오.



앞서 졸업하신 선배님들께서 좋은 안내자들을 이렇게나 많이 남기셨으니까요.



이제 당신들 앞에 어려운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왕따야~.

아~ 돈이 필요해.

외로워... 사랑 받고 싶어.

카드빚을 어떡하지~.



어려운 시험 때문에 고통스럽다구요?

네~ 죽고 싶어요~!!!



계속해서 도망 다닐 건가요?

영원히 유급되어 이 학교에 머물고 싶은 건가요?



에잇~ 차라리 뛰어 내릴래.



잠깐만요!



당신이 지금 괴롭고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당신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 손실, 하청업체에 떠 넘기지 않길 ...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날, 그 그룹 자동차 회사가 임금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를 후에 전해진 신문은 "연봉이 평균 1,000만원 오르고 휴일수가 연 166일에 이르렀다"는 내용을 전했다. 선재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도대체 어떤 기업주가 어지간한 직장의 초임자 연봉의 반이나 되는 금액을 올려줄 것인가? 거기다가 급여는 1,000만원이나 오르는데 휴일이 거의 반이나 된다고?

선재의 궁금증은 곧 해결되었다. 발표된 연봉과 휴일의 계산은 먼저 근무한 지 '13년'이나 되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인상분은 '540만 원'이며 결정적으로 연봉이 인상되는 것과 휴일수는 양립하는 것이 아니어서 발표된 연봉을 받으려면 실제 가능한 휴일은 '110일'이라는 분석 결과가 보도되었다.

<속조단경>에서 해능 스님은 10대 제자를 불러서 자신의 멸도 후에 어떻게 설법하여야 종지를 잃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만약 누가 너

희에게 법을 묻거든, 말을 할 때 모두 쌍으로 하고 대법(對法)을 취하여 두 가지가 서로 인(因)이 되어 중도의 의미를 낳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어둠을 몰으면 "밝음은 인(因)이고 어둠은 연(緣)이니 밝음이 사라지면 곧 어둠이다. 밝음을 가지고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을 가지고 밝음을 드러내니, 이 둘이 서로 인이 되어 중도의 의미를 낳는다"고 대법하라 한다.

한쪽 측면만 보고 묻는 질문을 다른 한 쪽 면을 설명하여 완전한 진리로 이끌어주는 가르침이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연봉금액과 휴일수에 대한 경영자 측의 발표가 무비판적으로 전달됨으로써 노동자들은 나라 생각도 하지 않고 늘어난 돈만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로 그려졌다. 이 발표를 전해 듣고 문제제기를 해야 할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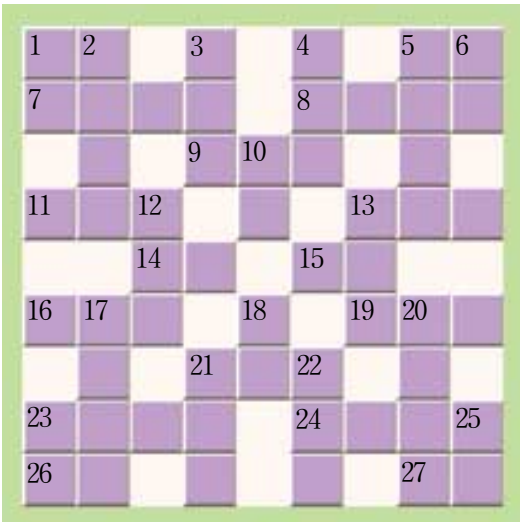
"노사의 임금협상의 결과 발생하는 5,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하청업체 노동자나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물러지는 것이 아닐까?"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석실)

## 상식퍼즐

가로

1. 한시 등 운자를 갖춘 문장
5. 제사 때 쓰는
- 그릇 7. 근본적인 무지에서 오는 번뇌의 세계 8. 오래도록 늙지 않고 살아 수행한 9. 금강산도 000 11. 태평성대를 찬란하는 노래 13. 서쪽에서 온 돛. 달마 000 14. 이름을 부를 15. 시 소설 영화 등의 장르에서 내용이 긴 작품 16. 빨아들이는 힘 19. 과거나 행을 만들어 파는 가게 21. 열반에 드는 편안한 곳 '천수경' 가운데 '원아속회000'가 나올 23. 어떤 일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24. 다섯 가지 욕심과 일곱 가지 감정 26. 잘못 보도함 27. 부처의 성품



<434호 <교리퍼즐> 정답>



세로

1. 구름과 안개 2. 문명의 여러 현상이 미치는 가치를 비평함 3. 제를 설치하고 수계를 하는 의식 4. 경 울 논장의 일체 경전을 통틀어 모은 책 5.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모든 부처님 6. 일어남과 누움 곧 생활함 10. 다음 생, 죽은 후의 생 12. 불보살이 잘 보살펴 두둔해 주는 힘 13. 판소리의 한 갈래로 조선 후기 박유전 명창의 법제에 따른 창법. 설진강 서쪽에서 성행 17.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는 인과의 법칙에 의해 지배 된다 18. 더운 기운, 추위의 반대 20. 과거에 출현한 일곱 부처님 21. 신앙이 없는 이, 불법을 만나고도 믿지 않는 이 22. 서유기에서 손오공 저팔계와 함께 삼장법사를 수행하는 인물 23. 번뇌를 벗고 진리를 크게 깨달음 25. 온갖 힘을 다하려는 침되고 성실한 마음.

## 육법등 (六法燈)

의장등록제 2002-33243호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정엄된 육법등

###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 활용 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 2) 지정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세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정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충남 및 대리점 모집



(주)동원전기

주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화 : 031)541-1417 / 팩스 : 031)541-1419

## 金烏불상 "천년의 풍경"



기존풍경에서는 소리가 맑고 깨끗하지 못하며 내구성이나 연결고리가 취약하여 수명이 짧고 일반주물에서는 표현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금오불상은!!

### 금오불상 풍경의 특징

자세 합금하여 재질의 순도가 높아 소리가 맑고 맥놀이까지 가능합니다. 각 연결부위를 스텐 및 특수주물로 제작하여 물고기가 떨어질 염려가 없어 빈 영구적입니다.

용소각의 최고 권위자가 조각하여 섬세하고 기품있는 외형은 풍경중에 백미이며 금오불상에서만 유일하게 제작합니다.

판매금액은 百萬원이나 기존 풍경 반납시 1set에 800,000원에 판매합니다. (반납된 풍경은 군법당 및 소규모 사찰에 무료 시주됩니다.)

풍경제원 ▶ 높이 : 22cm (용두 4cm)

▶ 넓이 : 14.7cm

▶ 무게 : 2.6kg

▶ 재질 : 동 98%, 실리온 1.8%, 기타 0.2%

전화번호 032)672-3136, 011-412-3136

계좌번호 국민은행 616701-01-187922 예금주 이성건